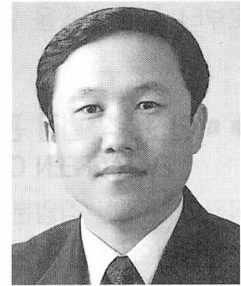


대한제지(주)

안전문제해결 능력을 통한 무재해 사업장 조성



대한제지(주)
안전관리자 안명호

충북 청원군 강외면 쌍청리 미호천 주변에 소재한 대한제지(주)는 제지업체로서 주 생산품인 신문용지를 생산하고 있다.

58년도 대한제지공업으로 시작하여 87년도 서울 광장동에서 청주공장으로 이전하여 그 동안 경험을 통해 얻은 기술력과 첨단설비를 통해 세계적인 다국적 제지 업체에 뒤지지 않는 전문 제지업체로 선두자리를 차지 하고 있다.

95년도에는 최첨단 자동화 설비인 초고속기계 분당 1,500m/min인 3m/c 초지기를 도입하여 일일 600ton의 신문용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생산량 확보는 물론 품질에 있어서는 자타가 공인한 세계1위를 자랑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각 신문사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

한때 국내경기 악화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노사가 하나가 되어 회사를 살리겠다는 뼈를 깎는 듯한 각고의 노력으로 품질향상, 생산증대, 무재해사업장으로 박차를 가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동종제지사에 뒤지지 않는 당당한 민족기업인 세계속의 제지기업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제지업체는 365일 주·야없이 기계를 가동하며, 장치산업이라 일컬어 크고 작은 동력용 모터가 3,000여대로 기계를 가동하고 있어 회전하는

위험기계·기구들로 빼곡하게 현장의 생산라인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회전물체의 위험요소가 많은 만큼 협착, 말려듦, 끼임 사고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154,000V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전기감전, 전기화상 등의 위험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으며, 많은 Steam 사용으로 인한 화상 위험, 매일 800ton이상의 생산품과 1,600ton 이상의 원부자재 등의 운반에 따른 중량물 취급시 압착, 차량 충돌 등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또한 많은 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끄러운 바닥, 고압용 청수, 고압용 air사용으로 전도의 위험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다.

잠시 한눈을 팔고, 정신집중이 되지 않는 부주의로 작업을 한다면 대형사고가 깜짝 할 순간에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인 것이다.

이렇게 작업장에서의 위험요소가 많다보니 더욱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며, 다각적으로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무재해의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사가 함께하고 있다.

1. 경영자 안전방침 조직체제 강화

매일 월례조회시 공장장 및 안전책임자가 안전훈시를 통한 경영방침을 전달하고 있으며, 안전

팀장의 월 안전목표 전달 및 전사적인 지적확인 구호제창은 실시함으로서 위험을 인식시키는 안전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외부인 내부작업시 사전안전작업허가서 작성제출 후 작업장 게시 및 작업관련자 안전교육 후 현장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철저히하며, 실별 안전책임자1명 선정 및 임명장수여, 부서원안전교육, 안전사고시 원인 분석 등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방침을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있다.

2. 작업전 위험예지 활성화

3교대 회사로 작업전 소집단 훈련의 Meeting 활성화로 건강상태점검, 건강체조, 안전목표 지적확인, 구호제창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팀의 참관표를 작성하여 주요위험 부서는 작업 10분 전 안전관리팀의 참관하에 교육 및 조언으로 안전의식, 지식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안전점검 일자를 작성하고, 작업전 의식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안전교육 강화 100%참석 활성화

매월 Staff에서 안전교육교안을 작성하여 전부서에 송부하고 안전책임자 주관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팀장 주재하에 안전책임자회의를 개최하여 안전의 중요성 및 아차사고에 이르기까지 그 위험성 및 원인을 분석하여 유사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다. 분기별로는 집체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전사원이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미참석자는 경고, 개별호출 교육 등 모든 직원에게 철저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 안전행사

15개실별 무재해기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 자체 소방훈련 모습

에 따른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 및 동기부여를 도모하고 있으며, 안전의식 고취는 물론 Team Work 향상, 소집단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고정 관념을 버리고 안전이 생산성 향상과 막대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각종 안전문제해결 능력 이벤트를 통해 작업자에게 인식시키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작업자의 요통예방 및 건강을 위한 체조 실시, 안전담당자의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및 Leadership 향상, 아차사고사례 공모 등이 있다.

5. 有備無患의 소방안전

화재시 초기진화는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후 조치로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소방훈련 및 이벤트를 통해 소화설비 취급 습관화, 전사원 및 협력업체 소방 정예화를 만들고 있다. 또한, 화재 특별위험지역 선정, 화기취급시 작업전 허가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위험지역내 법정소화설비 이외의 설비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옥내소화전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의 제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